【 주간이슈 】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혁 후 시장 평가와 시사점

이상우 선임연구원

□ **일본 퇴직연금 개혁 후 시장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중심의 시장재편, 은행 및 투신사 위주의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o 은행 및 투신사 위주의 시장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시장위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은행이 신 퇴직연금제도 전환 유치에 전사적인 영업전략을 집중하고, 은행 및 투신사가 DC형제도의 운용관리기관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반면, 보험회사는 전통형 퇴직연금의 유지 및 관리전략에만 집중하고 신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였기 때문
- o 규제완화, 소비자 니즈 변화,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원리금보장 중심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중심으로 투자패턴이 변화
- o 최근 일본의 금융기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호도 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마케팅전략 재구축 추진 중

□ **일본의 퇴직연금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연금 운용전략의 모색이 요구됨.**

- o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컨설팅 및 제도설계 능력 제고와 더불어 투자교육 및 마케팅 서비스 체제의 재구축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
-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수요 확대, 소비자 선호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적배당형의 운용상품 개발과 더불어 법규준수 리스크중심의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o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퇴직연금 회계제도의 도입 등 퇴직연금관련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

※ 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1. 서론

□ **일본은 2001년 퇴직연금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퇴직연금 체계로 전환함.**

o 40년만에 제도개혁을 추진한 직접적인 배경[1]에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의 기능 축소를 통한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임.

o 또한, 연공서열 · 종신고용 등의 고용관계에서 실력 · 성과주의로의 고용환경 전환, 연금자산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가중, 퇴직연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부채계상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음.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를 개혁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변화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3년이 경과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

o 일본은 규제 및 감독체제와 노동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시기, 제도도입의 배경 및 목적, 퇴직보험(신탁)의 전환, DB형 중심의 제도 운영, 대기업 중심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은행 위주의 퇴직연금시장 구조 등의 점에서도 매우 유사함.

□ **이에 본고는 퇴직보험(신탁) 전환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퇴직연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여 국내 보험회사에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o 먼저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개혁 후 주요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제도 유형과 기업규모별 시장점유율, 금융기관별 퇴직연금시장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등 통해 시장을 평가하고자 함.

---

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류건식 · 이상우,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보험연구원, 2007.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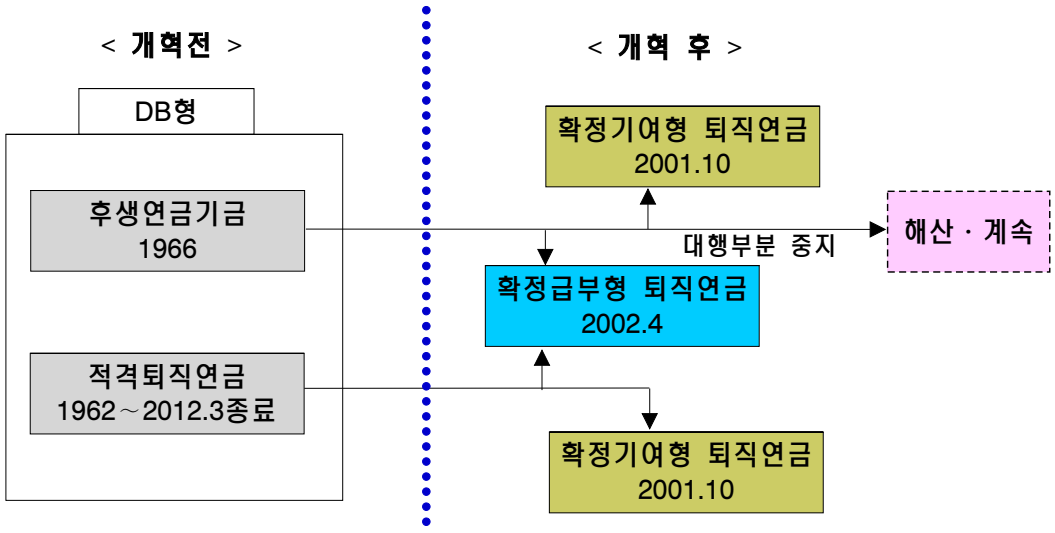
2. 개혁 후 퇴직연금제도 변화

가. 신 퇴직연금제도

□ 일본은 퇴직연금의 개혁을 위해 2001년 「확정갹출연금법(2001.10 시행)」 과 「확정급부기업연금법(2002.4 시행)」을 제정하고, 후생연금기금법, 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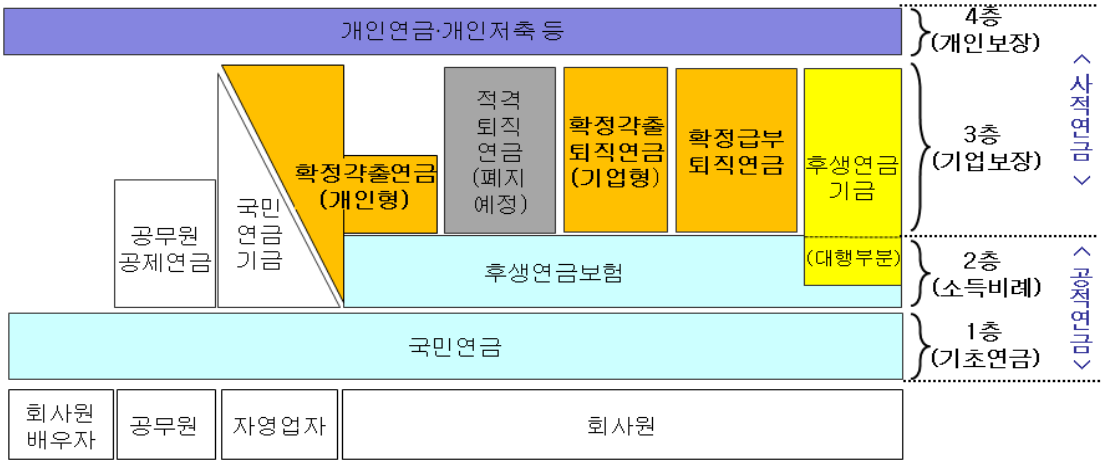
- o 개혁의 주요내용은 적격퇴직연금제도의 폐지, 후생연금기금의 대행제도 반환에 의한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이하 신 DB형)의 도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신 DC형)의 도입, 재정운영기준의 강화와 제도설계 및 운용규제 완화(후생연금기금 재정중립화를 포함) 등임.
- o 이에 따라 기존의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으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틀이 신 DB형제도와 신 DC형제도를 중심으로 한 신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됨.

<그림 1>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혁 전후 비교



□ 따라서, 현재 일본은 신 DB형제도와 신 DC형(기업형, 개인형)제도를 중심으로 기능이 폐지 또는 축소된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의 전통형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하여 운용되고 있음.

<그림 2> 현행 일본 퇴직연금제도 전체 체계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일부 보완

□ 신 DB형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 2002년 4월에 시행되었음.

o 동 연금은 기금설립 유무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단독형과 복수형으로 구분됨.
o 동 연금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적립의무, 수탁자 책임, 정보공시 등과 같은 수급권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음.
  - 적립의무 : 연금자산의 적립기준을 설정하고 재정 재계산, 재정 검증이나 적립부족 해소 의무 규정
  - 수탁자 책임 : 사업주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자 등에 관한 책임 및 행위 준칙을 명확화 하도록 의무 규정
  - 정보공시 : 사업주 등은 업무의 개황에 대해 가입자 등에 정보공시 및 후생노동장관 보고의무 규정

□ 신 DC형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1년 10월에 시행되었음.

o 가입주체에 따라 기업형과 개인형(IRA)로 구분되며, 기업이 단독 또는 복수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단독 · 연합 · 종합형으로 구분됨.

o 기업형은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입시키는 연금이고 개인형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자영업자, 다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임.

o 기업형연금의 연금보험료 한도는 가입자 1인당 월 4.6만엔이며, 타 퇴직연금과 중복하여 가입할 경우 월 2.3만엔까지 납입이 가능

o 기업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적립부족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교육 의무가 있음.

나. 전통형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 **기존의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하며, 새로운 신 DB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 3월에 폐지될 예정임.**

o 개혁 후 일본 정부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신 DB형(규약형, 기금형)으로 자산이전 계약을 체결 또는 기존 연금의 해약 후 신 DC형제도 등으로 계약 이전을 유도하고 있음.

□ **기존의 후생연금기금은 신 DB형제도의 도입 후 기업이 대신했던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이 정부로 다시 이양되어 기능이 축소되었음.**

o 동 기금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소득비례 노령연금부분을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이 급여를 대행하면서 기본급여 이외에 독자적으로 일정부분을 덧붙여 부과·운용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임.

o 개혁 후 일본 정부는 기존 가입 근로자들에게 후생연금기금 해산 후 이와 유사한 방식인 신 DB형제도로 계약을 이전, 신 DC형제도로 계약이전, 후생연금기금 잔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중임.

3. 퇴직연금제도 개혁 후 변화와 평가

가. 개혁 후 시장변화

□ **개혁 후 전통형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축소 영향으로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의 가입률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o 개혁 직전(2001년) 퇴직연금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54%와 46%로 양분되던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은 개혁 7년후(2008년) 각각 20%와 27%로 추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

<표 1> 일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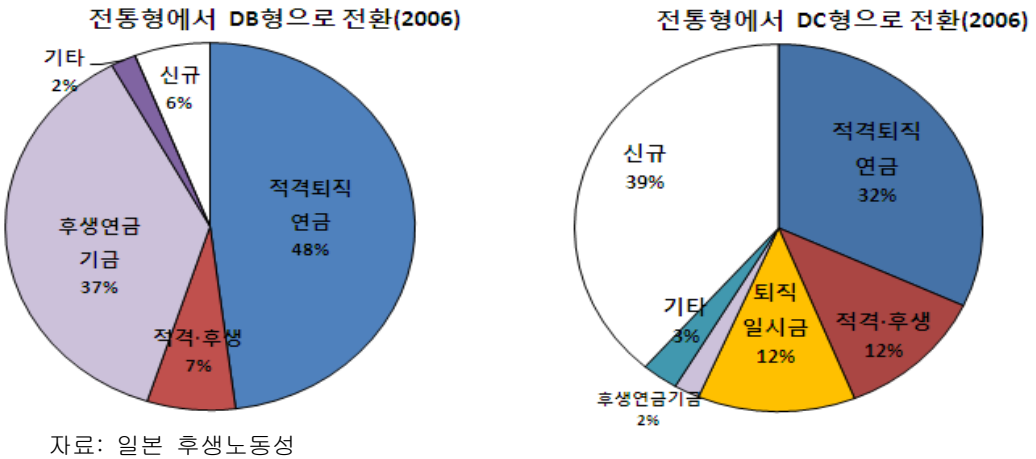
구 분	전통형 퇴직연금			신 퇴직연금			합 계
	적격퇴직연금(A)	후생연금기금(B)	비 중	신 DB형(C)	신 DC형(D)	비 중	
2001	926(46%)	1,087(54%)	100%	-	-	0%	2,012
2003	782(43%)	837(46%)	89%	127(7%)	73(4%)	11%	1,819
2005	563(34%)	530(32%)	66%	381(23%)	166(10%)	33%	1,657
2007	442(26%)	476(28%)	54%	436(30%)	272(16%)	46%	1,700
2008	347(20%)	468(27%)	47%	607(35%)	312(18%)	53%	1,734

주: ( )안은 비중이며, 2008년은 가집계치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기초통계

□ 적격퇴직연금은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신 DB형제도로 55%가 전환하였으며, 기업의 퇴직급여 부채에 대한 회계부담이 적은 신 DC형제도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4%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o 후생연금기금은 연금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사전에 급부액이 확정된 현행 기금의 성격과 동일한 신 DB형제도로 44%가 이동하였으며, 신 DC형제도로 14%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중복가입 포함).

<그림 3> 전통형 퇴직연금에서 신 퇴직연금으로 전환 실태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 반면, 신 퇴직연금제도는 개혁 이후 전통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도입 7년만에 53%까지 성장함.

o 전통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유사한 신 DB형제도를 중심으로 신 DC형제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신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신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추이: 11%(2003) → 33%(2005) → 53%(2008)

o 신 DB형제도는 적격퇴직연금의 폐지와 후생연금기금의 기능 축소로 인하여 동 연금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2003년 7%에서 2008년 35%까지 성장함.

-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에서 자산이전이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적격퇴직연금에서 약 75% 이상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o 신 DC형제도는 적격퇴직연금의 폐지와 2000년 퇴직급여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연금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2003년 4%에서 2008년 18%로 성장함.

- 도입형태를 보면 타 퇴직연금 및 퇴직금제도에서 계약이전이 전체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44%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신규가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39%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고, 신 DB형제도 보다 신 DC형제도를 도입한 기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전체 가입률은 대기업이 8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견기업(69.3%), 중소기업(58.9%), 소기업(37.0%)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 DB형제도에서도 동일함.

<표 2>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제도별 도입 실태(2008년)

(단위: %)

구분	종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전체
전통형	후생연금기금	12.7	27.2	31.8	**41.1**	35.9
	적격퇴직연금	34.1	54.9	57.9	**45.7**	**49.5**
신 퇴직연금	신 DB형	**45.2**	22.4	12.1	7.4	11.7
	신 DC형	**35.0**	20.3	**17.6**	**13.0**	15.9
전체		**80.8**	69.3	58.9	**37.0**	**47.0**

주: 1. 대기업(1000명 이상), 중견기업(300~999명), 중소기업(100~299명), 소기업(30~99명)
2. 본사 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 대상의 실태조사(복수 응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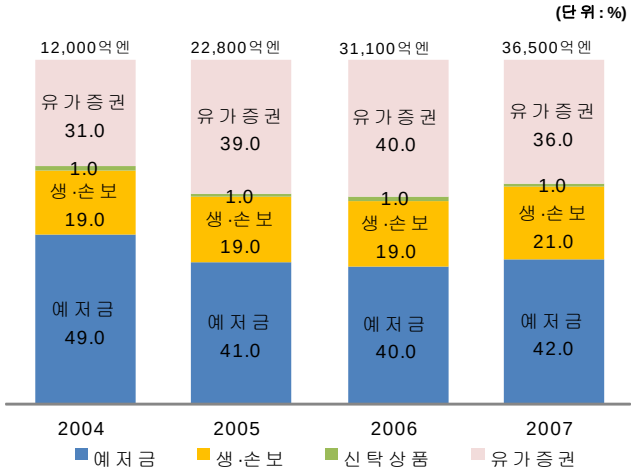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실태조사를 재작성

o 다만, 신 DC형제도는 소기업이 가장 높고(64%), 다음으로 중소기업(59%), 중견기업(48%), 대기업(44%)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신 DB형과 신 DC형의 비중 기준).
- 이는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 보다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 및 소기업에서 신 DC형제도의 도입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신 DC형제도의 자산규모는 연평균 91% 이상 성장하고 실적배당형의 자산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2002년 이후 신 DC형제도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1,400억엔 규모에서 2007년 25배 증가한 3조 6,500억엔의 자산이 수탁 운용됨.
o 또한, 2004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 예금상품 등 원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림 4> 신 DC형제도의 자산구성비율 추이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 **금융기관별 퇴직연금시장은 투자신탁이 크게 성장하여 은행과 투자신탁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개혁 전 퇴직연금시장은 신탁은행(53.3%)과 보험회사(33.5%)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며, 신탁은행의 경우 대기업 중심인 후생연금기금에서 경쟁력이 높은 반면,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가입 중심인 적격퇴직연금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았음.

o 개혁 후 은행 및 투신사 위주의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

<표 3> 퇴직연금시장 금융기관 수탁 점유율 추이

(단위: %)

	1991	1997	2001	2003	2005	2006	2007
신탁은행	59.7	53.3	48.2	56.7	47.8	48.2	46.1
보험회사	39.6	33.5	22.2	15.7	13.5	14.0	16.3
투자신탁*	0.6	13.2	29.5	27.6	38.6	37.8	37.6

주: 투자신탁은 투자자문업 겸업회사
자료: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연도별 실태조사

□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 신 퇴직연금제도 전환 유치에 전사적인 영업전략을 집중하고, 은행 및 투신사가 DC형제도의 운용관리기관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반면, 보험회사는 신 퇴직연금시장 개척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o 보험회사가 기존 적격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대한 신 DB형 제도로의 전환 유도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은행 시장인 후생연금기금의 전환 대기수요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척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은행은 일본의 기업구조 특성상 대기업에 대해 경쟁력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주거래 관계를 영업전략으로 활용하여 신 DB형 제도로 전환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은행 및 투신사는 DC형제도의 운용관리기관으로 본격 참여한 반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적격퇴직연금 가입 기입의 신 DC형 전환 유치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일본의 은행 및 투신사는 신 DC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호도 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마케팅전략을 재구축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실적이 부진하는 등 신 DC형제도의 진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 후생노동성(2009. 3)에 등록한 신 DC형제도의 운용관리기관 등록회사 200개 금융기관 가운데 총 12개 보험회사(생보 7개, 손보 5개)만이 등록하여 현재 73개 보험회사 가운데 16%만이 등록한 실정임.

<표 4> 은행 및 보험사의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추이(자산금액 기준)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적격퇴직연금	보험	42.3	40.9	41.1	44.3	40.0	40.4	42.7
	은행	56.6	57.8	57.5	53.9	58.7	57.5	54.5
후생연금기금	보험	19.7	17.2	13.6	9.7	7.7	7.8	8.4
	은행	80.3	82.8	86.4	90.3	92.3	92.1	91.6
신DB제도	보험	-	14.2	13.4	15.0	15.0	15.5	18.2
	은행	-	95.8	86.6	85.0	85.0	84.5	81.8

주: 적격퇴직연금은 기타 금융기관 제외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타(2001, 2002), 일본 생명보험협회(2003~2007)

나. 개혁 후 시장평가와 향후 전망

□ 양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개혁 7년간 신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추세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o 전체 기업 중 약 47%의 기업이 퇴직연금(신 퇴직연금에 27.6%)을 도입하고, 신 퇴직연금의 시장점유율이 개혁 후 7년 만에 2008년 53%의 비중으로 늘어나는 등 크게 성장함.

<표 5> 전통형 · 신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2001	2003	2005	2007	2008
전통형 퇴직연금	100	89	66	54	47
신 퇴직연금	0	11	33	46	5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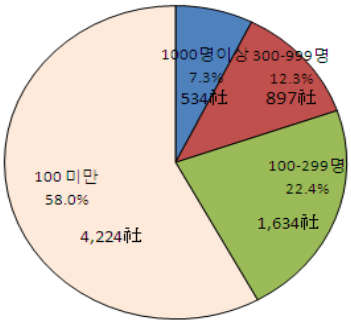
□ 질적인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시장에서 신 DB형제도와 신 DC형제도가 지속적이고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제도 도입의 균형 있는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신 DB형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신 DC보다 많은 반면, 신 DC형제도는 가입 기업수가 신 DB형보다 더 많으며, 신 DB형을 중심으로 신 DC형제도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임.

□ 또한, 대기업의 근로자는 신 DB형제도를 선호하며, 중소기업 사용자는 신 DC형제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됨.

o 신 DC형제도 가입 근로자 구성을 보면 300명 미만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신 DC형제도 도입 실태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08)

□ 신 퇴직연금 도입 이후 원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의 투자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근로자가 투자책임을 지는 신 DC형제도의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투자가 2004년 32%에서 2007년 37%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신 퇴직연금제도 활용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o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미진하고 전통형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에 대한 노·사가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신사의 시장점유율이 눈부시게 성장한 가운데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됨.

o 은행 및 투신사의 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공격적인 시장 진입전략으로 은행 및 투신사 위주의 시장 재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일본의 퇴직연금시장은 신 DB형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경우 신 DC형제도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o 신 DC형은 이미 연금보험료 기여 한도액이 한계에 달하는 등 다양한 가입제약 등이 존재하나 DC형 개선에 관한 근거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 전통형 퇴직연금의 DC형 전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신 DB형(기금형)은 기능이 축소된 후생연금기금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퇴직급여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급여 적립부족이 발생할 경우 재무제표상에서 회사채무로 계상되므로 재무건전성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4. 보험회사 전략적 시사점

□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혁 이후 급격한 시장 변화는 국내 보험회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용 전략의 모색이 요구됨.

□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차별화된 컨설팅 및 마케팅 능력의 지속적인 제고 전략이 필요함.

o 국내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개인별 라이프플랜 등 컨설팅능력을 제고하고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 및 마케팅 서비스 제공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운영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되 장기적으로는 일괄서비스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시장 세분화 측면에서 퇴직연금시장을 근로자 및 기업별, 업종별로 목표시장을 분류하여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한 차별화된 시장 확보 전략이 요구됨.

o 근로자의 속성별, 기업의 업종별 투자리스크 선호 성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목표시장의 니즈에 부합한 신 DB형 또는 신 DC형제도의 확보 및 진출 전략의 추진이 필요함.

□ **운용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DB형 중심에서 DC형으로 시장 재편 및 수요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o 퇴직연금 가입 초기의 근로자에게는 안정형 중심으로의 운용상품을 제공하되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상품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함.
o 이와 함께 DC형제도 진출에 대비하여 별도의 법규준수 체제 구축, 수탁자 책임의무에 대한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법규준수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o 아울러 자산운용 규제완화, 소비자 니즈 변화,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에 따라 원리금보험상품에서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점진적인 이동하는 근로자의 자산운용 니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측면에서 퇴직연금 전환 시기 도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확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o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차별화와 전문화된 일괄서비스(교육, 컨설팅, 연금운영, 자산관리, 기록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o 대기업 시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공시 제공 등을 통한 유지관리 전략의 추진이 필요함.

□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퇴직급여회계제도의 도입 등 퇴직연금 관련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 KiRi